

민들레

202413065 만찬별

푸른 숲으로 하늘을 덮고
어둠을 향해 뿌리를 내린다
더 높이 더 깊이 더 멀리
숲은 자란다

나무들은 모든 것을 감싸안고
불어오는 가벼운 바람에 쓰러지는 풀잎 하나 없을 때
내리쬐는 따뜻한 햇살은 차가운 그림자로 흠어들 때
숲은 커진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쉬는 민들레
작은 바람에도 숨결은 조각조각 흠어진다
더 많이 더 멀리
민들레는 사라진다

한여름의 눈송이가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숲에 머무를 때
민들레는 자란다

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

고전 도서명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작품 설명

밀이 주장하는 자유론에서 '다수의 폭정'이란 개념을 자연물에 비유한 작품이다. 밀은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억압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 동시에 소수의 의견을 묵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 작품에서 나무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숲에서 나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민들레는 소수를 의미한다. 숲은 다수의 의견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 즉 다수결을 의미한다.

1연은 다수의 견해를, 나무가 자라 숲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2연은 다수가 억압하는 것을, 많은 나무들이 바람과 햇살을 막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3연은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침묵하게 하는 것을 민들레 홀씨가 날려 민들레가 사라지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4연은 소수의 주장도 존중해야 하고 그들의 입을 막으면 안된다는 자유론의 입장에 맞게 날린 씨앗으로 인해 민들레는 사라지거나, 묵살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였다,